

폭염 고위험군 보호 안전망 가동

국정과제 추진 전반 고른 성과

익산시보건소장, “고령자·만성질환자 중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여름을 앞두고 익산시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이중 안전망을 마련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기존 방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시는 폭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방문·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대응과 건강수칙을 안내해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열사병, 탈진, 경련, 무기력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탈수, 뇌혈관질환, 급성 합병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낮고, 만성질환자는 질환이 악화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이다.

시는 올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폭염 특보 시 현장 밀착형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이들은 특보 발효 시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건강 상태 확인 △응급상황 초기 대응 △무더위쉼터 안내 △폭염대응 수칙 교육 등을 진행한다.

실제 지난해 시는 폭염특보 기간 전후 2538건, 직접 방문 1,679건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건강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올해 시는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건강관리 사업도 병행한다. 몸에 착용하는 기기를 통해 혈압, 혈당 등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방식이다.

시는 비대면으로 파악된 정보를 활용해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유선 연락 또는 즉시 방문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비대면 건강관리 시스템은 방문 건강관리와 연계돼 기술과 현장을 결합한 이중 건강안전망으로 작동한다.

시는 오는 6~9월을 폭염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하고, 폭염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무더위가 예보되면 선제적으로 건강관리 안내와 예방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14개 보건지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무더위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응 수칙 홍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밀착형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폭염은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보건 재난”이라며 “익산시는 현장의 손길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건강안전망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합동평가 달성률 98.15% 도내 1위 · 종합 2위

군산시가 2025년도(2024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지표 달성률 98.15%를 기록하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가운데 종합 2위를 차지, 우수한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 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량평가와 지표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군산시는 이 평가에서 정량평가 지표 69개 중 66개를 달성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달성도 1위를 차지했다. 정성평가에서도 ‘배현수과 자원화 사업’이 행안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하반기 정성지표 우수시·군 평가 시부 1위를 차지해 종합 2위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이루었다.

군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위해 지난해, 매월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목표 달성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또한 직원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 역량 강화와 부서 간 소통에 주력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성과는 직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 추진과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모든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준 덕분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더욱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현장점검

강임준 군산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소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5월 28일 수송동 사전투표소인 수송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투표소 설치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6월 3일에 실시된다. 군산시에는 사전투표소 27개소, 본투표소 78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사전투표소의 시설 배치, 동선 관리, 안내 표지 설치, 장애인 접근성 등 시민들이 투표에 불편함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사전투표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차질 없이 행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군산시는 사전투표소뿐만 아니라 본투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선거 당일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사전투표 준비 상황 점검 완료

익산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안정적인 투표 진행을 위해 민간의 준비를 점검했다. 익산시는 28일 지역 내 29개 사전투표소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투표소 설치는 물론 이동 동선 안내,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까지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사전 교육을 받은 투표관리요원들을 배치해 투표 당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가능하다.

선거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2007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투표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며,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상세 주소 직접 부여 사업 본격 추진

익산시가 시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원룸과 다세대주택에 상세 주소를 직접 부여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동·층·호수와 같은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주소 체계다.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하지만 건축물 대장에 상세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가 잘못 전달되거나 응급 상황에서 구조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하고, 건물 소유자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상세주소를 직접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시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 정확한 우편물 배송은 물론,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익산=이재춘기자

국립군산대, 지역인재 7급 최종 합격자 배출

국립군산대학교에서 2025년 지역인재 7급 수습 지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28일 국립군산대에 따르면 지역인재 7급 수습 지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하고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한 시험으로,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학과 성적 상위 10퍼센트 이내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이번 지역인재 선발에 최종 합격한 최나영(국립군산대 행정학과 전공, 2024년 졸업)씨는 “지역인재 7급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도 교수님과 취업지원실 미래인재반 선생님들, 선배들의 큰 도움을 받아 감사드린다”며 “현재의 초심과 열의를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보건시설 개선으로 시민 건강권 챙긴다

항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추진... 주민 밀착형 건강서비스 확대

익산시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후 보건기관을 전면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항등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노후 보건시설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현장 중심의 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강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는 항등면 지역에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항등보건지소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시설 개선 사업에 선정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 한열에 이어 익산지역 두 번째 건강증진형 보

건지소로 재탄생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억7,800만원이 투입되며, 기존 1층 건물에 264㎡ 규모의 공간을 증축하게 된다. 내부는 건강관리실과 상담실 등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이 강화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보건소는 지난해 8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6월 착공해 하반기 내로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에너지 효율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성능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73억 원의 예산을 확보

해 보건지소 7곳, 보건진료소 20곳 등 총 27개소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약 12억 원을 투입해 용안·용동·삼기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단열보강, 환풍 교체, 고성능 냉난방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뿐 아니라 탄소중립 도시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진운 익산시 보건소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기관의 기능과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